日 사찰, 성소수자 커플 埋葬 시스템 도입

〈매장〉

쇼다지 사원, LGBT 커플 함께 안치하는 묘지 '안도' 운영

도쿄의 한 불교 사원이 성소수자 커플을 위한 묘지 시스템을 고안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사후(死後)에도 함께 묻히길 원하는 성소수자들의 빗발치는 수요에 따른 것.

'Japan Times'는 에도가와 구에 위치한 쇼다지 사원(Shodaiji temple)이 성소수자들로부터 묘지와 관련 수많은 문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원 측은 "우린 다양한 성정체성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죽은 후 매장(埋葬)을 걱정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밝혔다.

성소수자(LGBT: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앞 글자를 딴 것)들은 대부분의 경우 자녀를 갖지 않기 때문에 사후 묘지 관리가 큰 걱정거리다. 이에 사원이 운영하는 묘지에 함께 안치되길 원하는 성소수자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마츠미 요카타(Mutsumi Yokata) 전 일본묘지협회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미혼 커플의 매장에 대한 법적 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소수자 당사자들의 친인척들의 반대와 공동묘지 운영자들의 기피 때문에 성소수자 커플이 함께 안치될 수 있는 공동묘지는 흔치 않다.

이에 대해 쇼다지 사원 주지 이노우에 스님(43)은 "내가 아는 한 성소수자 커플이 공유할 수 있는 무덤이 없다"면서 "불교는 성정체성에 따라 차별을 두거나 어떤 고정관념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성소수자 커플이 묘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일본 사회서

성소수자들 요청 빗발쳐

커플 수용 묘지 시스템 도입

일본묘지협 "법적 제한 없어"

대리석 묘석에 두 유골 안치

그들의 매장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한다고 강조한다.

쇼다지 사원이 성소수자 커플을 위해 추진하는 묘지 명칭은 '안도(安堵)'다. 단어 의미 그대로 죽은 후 안도하고 편히 잠들란 뜻이다. 이노우에 스님은 성소수자들이 사후에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비로소 평화를 찾길 바라는 마음에서 '안도'라 이름 지었다고 설명했다.



쇼다지 사원(Shodaiji temple)이 성소수자 커플이 함께 안치될 수 있는 묘지 시스템 '안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inquirer.net

'안도 묘지 시스템' 아래서 성소수자 커플의 유골은 높이 120cm 기둥 모양의 대리석 묘석에 보관되며, 커플들의 이름이 새겨진다. 이후 유골은 후에 사망한 사람의 6주기가 되는 날 '영원한 추모재' 공간으로 옮겨진다.

한편 'Japan Times'는 지난해 일본 대도시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동성커플의 공적 지위를 인정한 홋카이도의 삿포로시의 정책이 오는 6월부터 공식 시행될 것임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삿포로시는 당초 4월부터 동성커플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공적증명서 발급 등 절차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이에 앞서 예비시행기간을 갖고 대대적인 제도 홍보에 나선다.

일본서 동성커플의 공적 지위를 인정한 지자체는 도쿄의 시부야 · 세타가야구, 미에 현의 이가 시, 효고 현의 다카라즈카 시, 오키나하의 나하 시가 있다. 하지만 정령시(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중 지자체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시)에선 삿포로가 처음이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로힝야족 무장단체 "우린 테러집단 아냐"

경찰초소 습격 후 5개월 만 입장발표

지난해 10월 미얀마 경찰초소를 습격해 미얀마군의 '인공청소'를 촉발한 로힝야족 무장단체가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침묵을 깼다고 AP통신이 3월 29일 보도했다.

자신들을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이라 칭한 이 단체는 "우리는 아라칸의 로힝야족을 지키고 구원하기 위해 나섰다"며 "우린 국제법의 자기방어원칙에 따라 스스로를 지킬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아라칸'은 100만 이상의 로힝야족이 거주했던 미얀마 서부 라카인 주의 명칭이다. 또한 이들의 단체명인 'ARSA'는 과거 '하라카 알-야킨(Harakah al-Yaqin, 믿음의 운동)'이란 이름으로 미얀마 정부에 대항했던 로힝야족 단체다.

이들은 이날 또한 "우리는 어떤 테러 집단과도 연관 없다"면서 "테러를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종교 · 인종적 요인에 의해 민간인을 상대로 한 테러는 저지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5개월 간 자신들을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소탕작전을 실시한 미얀마군에 전면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얀마군은 지난해 10월 라카인 주 마웅토에서 무장괴한에 의한 경찰초소 습격사건이 발생하자 무장세력 토벌을 빌미로 로힝야족 거주지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감행했다. 이 과정서 로힝야족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고, 7만5000여 난민들이 방글라데시로 도피했다.

로힝야족은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 무슬림 소수민족으로서 방글라데시계 불법 이민자로 취급당하며 박해받아왔다. 2012년 불교도와 이슬람교도 간 충돌로 100여명이 사망한 후엔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탄압이 더욱 극심해졌다.

박아름 기자



마하리쉬 대학 마이클 딜벡 • 케네스 카바너 박사는 최근 명상이 약물로 인한 사망과 영아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단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출처=Forbes

명상, 약물 · 영아사망률 낮출 수 있다

마하리쉬大 마이클 딜벡 박사 외 1인

'명상의 효과' 연구논문서 밝혀

명상이 약물로 인한 사망과 영아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마하리쉬 대학의 마이클 딜벡 박사와 케네스 카바너 박사는 최근 '명상을 하는 개인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 "눈을 감고 정신적으로 고요한 침묵을 하는 등의 명상행위를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낮은 호흡률과 심박수 등을 보여 평온함을 느끼고 스트레스가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두 박사는 사회복지, 집단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를 확장하기 위해 유아 사망률과 약물사망률을 유발하는 스트레스 요인을 연구했다. 그 결과 명상을 집단적으로 한 그룹은 스트레스가 감소해 사망 유발 요인이 평균 3.12%와 7.62%가 줄어드는 결과를 발견했다.

연구원들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유아 사망률과 약물 사망률의 변화를 추정,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그들은 논문을 통해 "사람들이 건강과 살인, 폭력 및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명상이 유의미한 효과를 갖는다"며 "정부와 사회기관에서는 명상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17대 갈왕 카르마파 비공식 의식 '깜짝 결혼'

제17대 갈왕 카르마파 타에 도르제(Thaye Dorje)가 3월 25일 델리에서 어린 시절 친구인 Rinchen Yangzom과 결혼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갈왕 카르마파는 티베트 불교의 900년 된 카르마 카규파의 최고 수장이다.

'PRNewswire'에 따르면 비공식 의식으로 이뤄진 이날 결혼식은 갈왕 카르마파가 제자들에게 깜짝 성명을 발표하며 밝혀졌다. 올해 33세를 맞은 갈왕 카르마파는 결혼 후에도 카르마파로서 자신의 모든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신이 더 이상 수도승이 아니기 때문에 사제 서품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그는 사제 서품 업무를 제4대 잠곤 콩트룰 린포체(Jamgon Kongtrul Rinpoche)인 Karma Mingyur Dragpa Senge에게 위임했다.

카르마파는 이날 "나의 결혼이 나 자신 뿐 아니라 우리 종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리 모두를 위해 아름답고 이로운 무언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쁨을 표했다. 박아름 기자

美 불자들, 피난민 권익보호 도보순례 앞장

매일 12마일씩 걸으며 비폭력 순례활동 알려

스님들이 미국 이민자들과 피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州) 레버렛에 위치한 뉴잉글랜드 평화사원의 스님들이 그 주인공이다.

2001년 9.11 테러사건 이후부터 도보순례를 이어온 스님들은 지난 3월 10일부터 매사추세츠 주정부의 이민자들과 난민 거주 합법 승인을 위한 도보순례를 시작했다.

'안전 공동체 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제임스 엘드리지 상원의원이 연방정부에 올린 것이다.

'새봄맞이 걷기'라는 이름으로 2001년 9.11테러 이후부터 순례 프로젝트를 진행한 팀 불록 스님은 "이 순례활동은 9.11테러 사건을 보고 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생각해 시작된 것"이라며 "사람들이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격려하기위해 이런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잉글랜드 평화사원 스님들이 도보순례로 피난민 권익보호에 앞장서도 있다. 사진출처=The Eagle-Tribune

순례자들은 매사추세츠 주 북동부에 있는 로렌스시의 한 카페에 도착해 저녁식사를 하고 북동부의 한 성당에 도착, 다음 할 일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메사추세츠 주의 뉴베리포트, 입스위치, 비벌리, 살렘 지역을 거쳐 그들은 보스턴 주의회 의사당에 '안전 공동체 법'을 제안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도보순례자들은 매일 8~12마일을 순례하고 있다.

불록 스님은 "다른 동행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진행하는 이 '순례의 힘'을 믿는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순례에 동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함께 동행하는 회원 중 하나인 토우비 씨는 "나는 기독교에서 불교로 개종했고, 불교를 배우게 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불교도 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싶어 도보순례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